

2016년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보고서

- 기 간 : 2016. 5. 27. ~ 6. 4.
- 연수국가 : 독 일 등 4개국



목 포 시

2016년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보고서

1 연 수 개 요

- 기 간 : 2016. 5. 27(금) ~ 6. 4(금) 【7박 9일】
- 연 수 국 : 4개국(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 연수목적 :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우리시와 연계되는 발전방안 모색
- 연수인원 : 4명(일자리경제과 조부갑, 조영설, 김형호, 최우형)
-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비 고
제 1 일 5월 27일 (금)	인 천 독 일	· 프랑크푸르트 도착 · 로텐부르크 이동	0Z541
제 2 일 5월 28일 (토)	독 일	· 로텐부르크 시청사, 프라우엔 교회 · 팔츠부르크 게트라이드 가세	
제 3 일 5월 29일 (일)	오스트리아	· 팔츠캄머гут 케이블카 체험	
제 4 일 5월 30일 (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 쉰부른 궁전 ·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체험	
제 5 일 5월 31일 (화)	헝가리	· 부다왕궁, 성이슈트반 사원	
제 6 일 6월 1일 (수)	체 코	· 캄파섬, 프라하 성, 트램탑승 체험	
제 7 일 6월 2일 (목)	독 일	· 카를로 비바리, 구시청사	
제 8 일 6월 3일 (금)	독 일	· 시청사, 뢰머광장 · 프랑크푸르트 출발	
제 9 일 6월 4일 (토)	인 천	· 인천 도착	0Z542

2 연 수 내 용

① 유럽의 경제중심, 독일

■ 일반현황

- 면적/인구 : 356,885km²(한반도의 약 1.6배) / 약 8,115천명
- 주요도시 : Berlin(수도), Frankfurt, Hamburg, Muenchen
- 주요언어 : 독일어
- 행정구역 :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 주요 방문도시

《Rothenburg ob der Tauber》

-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 북서부의 소도시로 중세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 중세의 보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 도시 전체가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로 제2차 대전으로 도시의 40%가 붕괴되었으나 지금은 중세의 도시로 완전히 복원되었음. 특히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중세시대를 구현한 듯한 동화속 마을 전경을 보고자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음.



로텐부르크 구시가지



로텐부르크 성곽

- 도시를 중세의 도시로 재복원하여 특별한 다른 구경거리가 없어도 마을 전체가 관광상품화 되어 있음. 또한 이런 볼거리 뿐만 아니라 눈덩어리라는 뜻을 진 슈니발렌 과자인 전통 먹거리 또한 상품화 되어 로텐부르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음.
- 우리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 재생화 사업 진행시 원도심 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전체를 비슷한 건물로 조성하여 마을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Frankfurt am Main》

- 뱅크푸르트라고 불리우는 프랑크푸르트는 금융과 산업의 도시로 화려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반면 뢰머 광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세시대 건물이 즐비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옛것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버무려진 느낌을 주는 도시임.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프랑크푸르트 전경

- 독일 어느 도시를 가든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전거 인데, 독일 인구의 80%가 자전거를 소유할 정도로 자전거가 대중화 되어 있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 이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며, 또한 특이하게도 자전거 면허증이란 제도가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혼자 보호자 없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함. 또한 최근에 자동차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여 사용하지 않는 철길과 고속도로를 연결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개통하였음. 독일 여행의 10%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하고 있다고 함. 우리시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활성화하여 목포 전 지역을 자전거로 여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자전거 표시판



자전거 전용도로

② 예술의 나라, 오스트리아

■ 일반현황

- 면적/인구 : 83,871km²/ 약 8,223천명
- 주요도시 : Wien(수도), Innsbruck, Salzburg
- 주요언어 : 독일어
- 행정구역 : 9개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 주요 방문도시

《Salzburg》

- 오스트리아 서부에 있는 도시로 모차르트의 출생지, 알프스로의 관문이며 소금의 성이라는 뜻을 지닌 도시임.
-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17세까지 살았던 도시로, 모차르트 생가를 모차르트 기념관으로 사용하여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악보,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음. 모차르트의 기념관이 있는 곳인만큼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의 상징이 되고 있음.

초콜릿, 화장품 등 모차르트의 얼굴이 담긴 각종 기념품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음.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기념관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거리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꼽히는 게트라이데 거리는 건물마다 가게의 특징을 살려서 만든 철제 수공간판들이 달려있는데, 현대적인 상점들도 오래된 전통을 따라 이 간판들을 달고 있음.

- 잘츠부르크에 모차르트 생가가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이 모이지만 그보다 유명한 건 게트라이데 거리의 간판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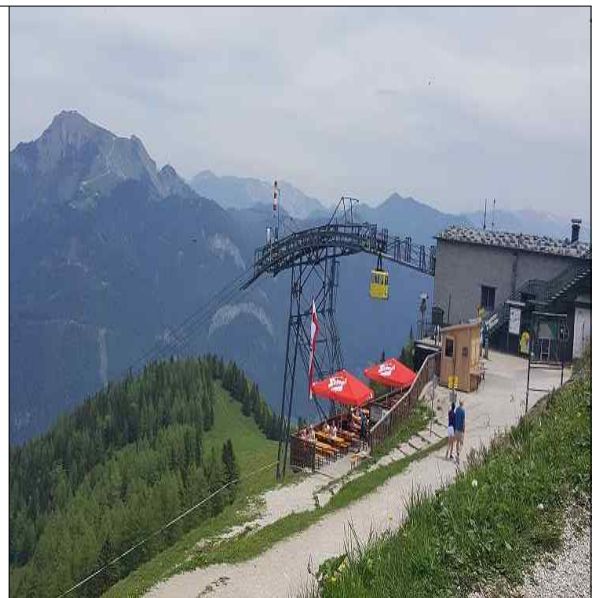
상호와 문양이 새겨진 아담한 크기의 간판을 보며 우리시의 무분별한 색색깔의 간판을 특색있는 간판으로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Salzkammergut》

-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주, 오버외스터라이히주, 잘츠부르크주 등 3개 주에 걸쳐 있는 지방으로 할슈타트, 장크트 볼프강, 장크트 길겐 등이 대표적인 마을임. 그 중에서 팔츠카머굿의 진주라고 불리는 할슈타트는 호수와 마을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hal이라는 뜻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전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으로도 유명한 곳임.



할슈타트 마을



츠벨프호른 케이블카

- 팔츠카머굿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있었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방문할 수 있도록 스키장, 요트, 하이킹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었음

우리시도 축제때만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
사계절 내내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츠벨프호른 케이블카는 4명이 정원이며, 정상까지 오르는데
3~5분정도 소요되는데, 케이블카 사이즈는 다소 작았음.

케이블카를 타고 1,523m의 정상에 오르면 전망대, 휴게소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인근에 패러글라이딩도 할 수 있게 조성해
놓았음. 우리시 케이블카 사업추진 시 고하도에 할슈타트 마을
처럼 아기자기하고 동화같은 팬션마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였으면 함.

③ 헝가리

일반현황

- 면적/인구 : 93,028km²/ 약 9,958천명
- 주요도시 : Budapest(수도), Debrecen, Pécs, Miskolc
- 주요언어 : 헝가리어
- 행정구역 : 19개주, 22개 카운티, 1개시로 구성된 공화국

주요 방문도시

《Budapest》

- 도나우 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부다(Buda)와 북쪽의 오부다
(Obuda), 동쪽의 페스트(Pest)로 이루어져 있음.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풍스런 건축물과 문화 유적이
즐비하고, 도나우 강과 온천수가 있어 물의 도시로도 유명하며,
'동유럽의 파리'로 불리고 있음. 회색빛의 낮과 달리 밤은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려함을 보였음. 평범해 보이던
건물들이 야관 조명과 함께 색다른 면모를 보였음.



부다페스트 전경



부다페스트 세체니 다리 야경

- 사슬이란 뜻의 세체니 다리는 다리위에 불빛이 사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다뉴브강과 황금빛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음. 우리시도 야관 경관 조명을 통일된 하나의 색으로 조성하여 야간 유람선 투어를 활성화 했으면 함.

4 체코

■ 일반현황

- 면적/인구 : 78,867km²/ 약 10,627천명
- 주요도시 : Prague(수도), Brno, Ostrava
- 주요언어 : 체코어
- 행정구역 : 13개주, 1개 특별시로 구성된 공화국

■ 주요 방문도시

《Prague》

- 백탑의 도시라 일컬어지는 프라하는 빼죽빼죽한 탑들로 된 중세시대 건축물들이 유명한 곳으로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고딕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재된 프라하 성임.

- 또한 캄파섬에 있는 존 레논 벽은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낙서로 시작되다가, 나중에 존 레논이 죽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 벽에 글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존 레논의 벽이 되어 관광명소가 되었음.
-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존 레논은 한번도 와 본적이 없다는 캄파섬은 단지 존 레논을 추모하는 글과 그림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임. 우리시도 존 레논의 벽처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글과 그림을 남길 수 있는 커다란 벽면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했으면 함.



성 비스트 대성당



캄파섬 존 레논의 벽

3 맺음말

-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면서 옛것을 보존하고 그 자체로 관광명소를 만들어 냈다는 것임. 전통과 역사를 지켜나가는 유럽인들을 보며 우리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